

## 광주 폭염 29일·목포 열대야 31일 온열질환자 260명으로 역대 최대

### 폭염이 남긴 기록들

광주 최고기온 37.2도 역대 2위  
8월 강수량 10mm...평년 5.8% 수준  
농작물·가축·어패류 피해도 눈덩이

8월 폭염일수 20일(광주), 열대야 22일(여수), 평균 최고기온(34.5도·광주), 온열환자 260명, 최대 전력사용량 5737MW, 가축 폐사 72만5254마리, 어패류 피해액 490억원, 논·밭작물 피해 9957ha.

사상 최악의 '8월 폭염', 1994년 이후 22년 만에 무더웠던 2016년 여름이 광주·전남에 남긴 기록들이다. 모두 기상 관측 이후 사상 최대치에 이른다. 그만큼 올해 폭염은 혹독했다.

타들어가는 밭작물만금이나 농어민들의 애를 태운 지긋지긋한 폭염이 점차 물러나는 기세다. 하지만 '살인 더위'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가축과 어패류는 폐죽음을 당했다. 경제적 피해도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6면>

25일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8월 광주의 일 평균 최고기온은 34.5도로 평년(31도)보다 무려 3.5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더위가 지속한 7월23일부터 지난 21일까지 광주·전남 일 평균 최고기온은 33.1도로 평년(30.2도)보다 2.9도 높았다. 모두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7~8월 광주의 폭염일수(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는 29일, 목포의 열대야일수(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는 31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남에는 무려 21일(4~24일) 연속으로 폭염이, 여수에는 21일(3~21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

가장 극값도 갈아치웠다. 지난 11일 해남의 낮 최고기온은 37.1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12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37.2도)도 역대 2위로 기록됐다.

반면 8월 광주·전남의 평균 강수량은 10mm로, 평년(172.7mm)의 5.8%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100년 만에 가장 무더웠던 8월"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지속 같은 폭염에 건설 현장 노동자, 어린이, 노인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5월23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발생한 광주·전남지역 온열질환자는 모두 260명(광주 87명, 전남

■ 숫자로 본 7·8월 폭염

☀️ 폭염일수	광주 29일, 해남 27일
🌴 열대야일수	광주 27일, 목포 31일
👤 온열질환자	260명, 사망 3명
⚡ 최대전력사용량	5737MW
🐔 전남 가축폐사	72만5254마리
🐟 전남 논·밭작물 피해	9957ha
🐟 전남 어패류피해	490억원

■ 광주 8월 폭염·열대야 달력 <최고기온·단위: °C>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1	1	2	3	4	5	6
36	35.7			33.9	35.1	34.5
7	8	9	10	11	12	13
33.1	34.8		34.5	36.7	37.2	35.7
14	15	16	17	18	19	20
34.9		34.9	34.1	34.7	34.8	35.9
21	22	23	24	〈범례〉		
35.9	35.7	34.1	34.9	☀️ 폭염 🌴 열대야		

173명), 사망자는 3명으로 2011년 온열질환자 감시체계 구축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88명)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연일 지속한 고온으로 농수축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전남도에 따르면 24일까지 닭 64만3000마리, 오리 8만1000마리, 돼지 619마리 등 모두 303농가에서 72만5254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폭염으로 병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올 전력사용량도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시간대별 최대 전력사용량은 지난 11일 5737MW(광주·전남)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올해 최대 전력사용량 1~5위가 지난해 최대사용량(5201MW) 1위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전남 폭염경보 해제...내달초까지 무더위는 지속

지긋지긋한 폭염이 점차 물러가는 기세다. 하지만 9월 초까지 30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나주·담

양·곡성·구례·장성·화순·무안·함평·영광·목포에 발효 중인 폭염 경보를 해제했다. 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해남·완도·영암·신안·진도에 내려졌던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낮아졌다.

하지만 9월에도 늦더위가 계속 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비는 다소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더위야 가라! 담양의 낮 최고기온이 33.7도까지 오르는 등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린 25일 담양 죽녹원 광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분수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주택공급 줄이고 대출·분양 심사 깎깐해진다

###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중도금 대출 1인 2건 제한

정부가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 '대출 조이기'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자, 주택 공급물량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10면>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가계신용은 1257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말 대비 33조6000억원(2.7%) 증가했다. 집계를 시

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치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프로세스별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택지 매입단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줄인다. 지난해 12만8000호에서 올해 7만5000호로 조절할 예정이다. 택지매입 전 분양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부·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공급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분양 단계에서는 올해 7월 기준 20개년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주택도

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집단대출(중도금)도 관리방안에 포함,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주택 공급 '육외기'에 나서자 지방 부동산 시장과 중소·중견건설사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이 많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는 상황에서 이번 관리방안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내달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출산 보완대책...남성 육아휴직 급여 확대

다음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고 내년 7월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된다. 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가진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이 잘 추진되면 내년 출생아가 2만명 가량 늘어

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자녀가 없는 가구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는 난임 시술 지원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한다.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은 현재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아이가 있는 경우 계속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현재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올해 3개월로 늘린 데 이어 지원금의 상한액을 다시 50만원 인상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